

부모 대상 자궁경부암 예방교육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

Trends in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on the Effect of Preventing Cervical Cancer Program in Parents

염영란, 임세미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Young-Ran Yeom(pseudoan@naver.com), Se-Mi Lim(nccsemi@gmail.com)

요약

본 연구는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된 자궁경부암 예방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검색은 2007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로 국외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PubMed, Science Direct, CINAHL을 이용하였고, 국내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RISS, Dbpia를 이용하였다. 검색된 자료는 총 329편이며,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에 따라 최종 7편을 선정하였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기법으로는 강의식 교육, 리플렛, 브로셔 제공, 문자메시지, 자기설득중재 등이 있었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예방교육프로그램은 강의식 교육으로 나타났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분석결과 부모의 자궁경부암 및 HPV에 대한 지식과 접종의도는 높아졌고, 실제 접종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부모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연구의 시도를 기대할 수 있다.

■ 중심어 : | 자궁경부암 | 인유두종바이러스 | 예방 | 교육 | 프로그램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previous studies on cervical cancer preventive education programs for parents. Data from January 2007 to November 2017 were searched via PubMed, Science Direct and CINAHL in foreign search databases, and RISS and Dbpia in domestic search databases. A total of 329 papers were searched, and 7 papers were finally selected based on the selection criteria and the exclusion criteria. Power point(PPT), leaflet, brochure and text messages were used as method for program education and among which, PPT were used the most. As a result of education program effect, it is found that parent's knowledge on HPV and intention for preventive inoculation became increased and rate of actual inoculation indeed higher. This analysis indicates there is a big need for cervical cancer preventive education program developing for parents in Korea and accordingly, various study for programs are expected to be performed.

■ keyword : | Cervical Cancer | Human Papillomavirus | Prevention | Education | Program |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자궁경부암은 여성에서 4번째로 흔한 암이며[1], 2015년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에서 상피내암을 제외한 자궁경부암의 발생건수는 3,500건으로 7위를 차지한다[2][3]. 자궁경부암의 발생은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oma Virus, HPV) 감염이 발병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HPV가 발견되면 자궁경부암의 발생 위험도가 10배 이상 증가한다[4]. 자궁경부암 발생의 필요원인은 HPV이지만 그밖의 위험요인으로는 흡연,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감염, 장기간 경구피임약의 사용, 출산횟수가 많은 경우, 사회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등도 알려져 있다[4].

지금까지 발견된 100여종 이상의 HPV 중 40여종이 항문과 생식기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병으로 성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최소한 50%이상은 일생 동안 HPV에 접촉하게 된다[2][4][5].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의 2009년에서 2013년까지의 결과에 따르면 HPV 감염으로 인한 암은 여성에서 23,300명, 남성도 16,500명이 구강인두암, 생식기 사마귀, 음경암, 항문암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6].

자궁경부암은 예방백신을 통해서 70%이상 예방이 가능하여 2006년부터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회원국 중 71개 국가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되었고, 2016년 6월부터 우리나라도 만11-12세 여아에게 국가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다[6]. 미국에서는 9~26세 사이의 소녀와 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HPV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7].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예방접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8-11]나 여대생[12-17]을 대상으로 한 자궁경부암 예방교육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지식 및 인식부족이 소녀와 소년들의 백신접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여 예방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6년 만12세 여성 청소년 무료지원 중

미접종대상 보호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HPV 백신 미접종 사유는 부모의 73.5%가 ‘부작용이 생길까 걱정되어서’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HPV 백신 관련 정보는 68.5%가 뉴스나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47.1%의 부정적 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8].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만 9세에서 26세 사이의 성경험이 없는 여성이 접종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2] 예방효과측면에서 최적의 접종대상인 청소년의 건강관련 의사결정자인 부모에게[10]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편견을 해결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보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HPV 관련 지식이 높은 부모일수록 백신을 접종시킬 의향이 높으며[8], 자궁경부암 예방행위가 적극적인 부모일수록 자신의 딸에게도 백신접종의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HPV와 자궁경부암과 관계를 강조한 부모대상 예방교육프로그램이 백신접종에 대한 지식,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및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10], 자궁경부암 백신접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지식과 백신접종에 대한 수용의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일반인들의 지식의 부족은 자궁경부암의 발병률을 낮추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백신 접종 시기와 방법, 백신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이 자궁경부암 백신접종의 저해 요인으로 나타났으며[9-11][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제공과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국내·외 자궁경부암 예방교육프로그램의 연구동향을 통해 종합한 결과로 향후 부모를 위한 지식교육의 체계적인 접근과 자궁경부암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궁경부암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2007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학

회지에 게재된 국외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2. 자료의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본 연구의 분석논문으로 선정된 대상 논문의 수는 총 7편이었으며, 대상 논문의 선정 기준은 2007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며,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된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한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검색결과 중복된 논문과 조사연구는 제외하였다.

3. 자료검색 및 분석절차

자료검색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로 하였다. 국외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PubMed, Science Direct, CINAHL을 이용하였고, 국내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RISS, Dbpia를 이용하였다. 검색을 위해 사용된 검색어는 국외논문의 경우 ‘Cervical Cancer’, ‘Human Papillomavirus’, ‘Prevention’, ‘Education’, ‘Program’의 단어로 308건이 검색되었으며, 국내논문의 경우 ‘자궁경부암’,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단어로 21건이 검색되었다. 초기에 검색된 논문은 총 329편이며, 검색된 자료를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에 따

라 전문 확인이 되지 않는 것(149편), 부모대상이 아닌 것(152편), 예방교육프로그램이 아닌 것(21편)은 배제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된 자궁경부암 예방교육프로그램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으로 국외논문 최종 7편을 선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자궁경부암 예방교육프로그램의 특성 및 효과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된 자궁경부암 예방교육프로그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발표 연도별 분포는 2011년 1편, 2012년 1편, 2014년 1편, 2015년 2편, 2016년 1편, 2017년 1편이었다. 대상자 수는 38명~445명으로 다양하였다.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가 6편으로 가장 많았고, 독일 1편으로 나타났다.

교육제공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eiter 등[20]의 연구에서는 교육용 파워포인트 자료와 유인물을 개발하여 30-40분의 교육을 진행하였고 Spleen 등[21]의 연구에서도 60분 동안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였다. 균형 잡힌 리플렛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방법[22], 브로셔와 자궁경부암백신에 대한 예방 웹사이트를 제공한 집단과 텍스트 메시지를 추가한 집단을 비교하는 방법[23]도 있었다. Rickert 등[24]의 연구에서는 간결한 건강 메시지의 효과를 보기 위한 중재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Mixed-methods 분석방법으로 45-60분 정도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HPV와 관련된 비디오를 5분에 걸쳐 제공하였으며, 자기주도적인 방법으로 11개의 질문에 대하여 브레인스토밍과 구두로 집중의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 답하였다[25]. 클리닉 측면, 교육제공자 측면 부모의 측면에서의 중재가 이루어지는 Multi-level 중재법도 시행되었고, 부모에게는 교육용 브로셔와 비디오를 제공하였다[26]. 이와 같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정보제공, 리플렛과 브로셔와 같은 핸드아웃을 통한 방법, DVD 비디오를 이용한 영상제공과 메시지를 이용한 방법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Reiter 등[20]의 연구에서는 HPV 유병률과 전염, HPV 감염과 관련된 질병, 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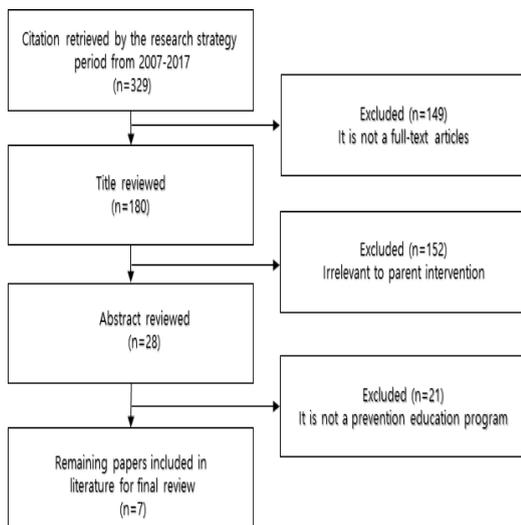


그림 1. 문헌 선별 과정

표 1. 자궁경부암 예방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Authors (year)	Methodologies	Contents	Effect of education
Reiter et al(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wer Point presentation about 30-40 min included time for questions · Handout 	HPV and HPV vaccine that provided information on HPV prevalence and transmission, diseases associated with HPV infection, vaccine recommendations, dosage schedule, vaccine efficacy and safety, and insurance coverage for the vacc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PV and HPV vaccine knowledge ↑
Spleen et al(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wer Point presentation about 60-min included time for group discussion 	information about HPV, its mode of transmission and causative effects on cervical cancer and genital warts, and HPV vaccine-related facts, including where the vaccine could be obtained, costs, insurance coverage, and economic eligibility for patient assistance progra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PV-related knowledge ↑ · Intent to vaccinate daughters within 1 month increased among parents
Wegwarth et al(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balanced leaflet · balanced leafl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balanced leaflet: completeness(base risk, benefit, harms), transparency, correctness/evidence-based information · balanced leaflet: completeness(base risk, benefit, har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balanced leaflet increased the number of participants who were correctly informed about cervical cancer and the HPV vaccine by 33 to 66 absolute percentage points.
Aragones et al(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ucational session alone · Educational session plus text messaging 	information on HPV, the HPV vaccine, and HPV-related cancers, and answered any questions the parent might ha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of those in the education plus text messaging group reported getting the first dose of the vaccine for their child and 87% among those in the educational group only. · 88% of those receiving the 1st dose in the text messaging group reported completing the three doses versus 40% in the educational group only.
Rickert et al(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hetorical question (RQ) or no-RQ · one-sided or two-sided message. 	parents' intentions to vaccinate their young adolescent, the first dose uptake of HPV vaccine, and series comple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1-sided and 2-sided messages had no effect. · This brief, RQ health intervention enhanced intent, but did not impact vaccination rates, likely due to the time delay between the intervention and consent form receipt.
Paskett et al(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ucational brochure and DVD video 	HPV and HPV vaccination, a magnet reminder to get the 2nd and 3rd HPV vaccine shot, and 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HPV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ong the 155 intervention participants who responded to questions about viewing the intervention materials, 139(89.7%) reported that they watched the video and 146(94.2%) reported that they read the brochure and vaccine informational statement. · HPV related knowledge ↑
Baldwin et al(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ief educational video (5 min and 20 s) · self-persuasion task, participants responded to 11 question prompts to help them brainstorm and verbalize different reasons for vaccinating their adolescent · cognitive interviews 	information about HPV (e.g., prevalence, consequences) and the vaccine (e.g., efficacy, saf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lf-persuasion approach affects parental decisions and adolescent HPV vaccine initiation and series completion in safety-net populations that experience significant disparities in HPV-related cancers.

권장사항, 투여일정, 백신 유효성 및 안정성, 백신의 보
 험적용범위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Spleen 등
 [21]의 연구에서는 교육내용에 자궁경부암과 생식기 사
 마귀에 대한 감염경로 및 원인, 비용, 보험적용범위와
 자격 등 자궁경부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였다. Rickert
 등[24]의 연구에서는 건강 메시지는 자궁경부암백신

의 첫 용량 시기 및 완료시점, 백신접종에 대한 부모의
 의도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중재에서 제공되는 비디오
 의 내용으로는 자궁경부암에 대한 발병률과 결과, 백신
 의 효능과 안전성이 포함되었다[25]. 이와 같이 주로 자
 궁경부암에 대한 이해 및 감염과 관련된 정보, 백신접
 종의 효과성 및 안정성, 접종시기 및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23][26].

중재를 시행한 후 교육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HPV 감염과 관련된 질환 및 HPV 백신에 대한 지식은 중재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20][26], Spleen 등[21]의 연구에서도 중재 전 지식정도 평가 시에는 대상자의 90% 이상이 지식항목의 18%를 정확하게 답변한 반면, 중재 후에는 59%를 정확하게 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Wegworth 등[22]의 연구에서는 균형잡힌 리플렛을 제공받은 군에서 예방접종의 이점 및 사망률 감소, 백신의 효능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ragonés 등[23]은 교육만 제공받은 집단보다 교육과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제공받은 집단에서 98%가 자녀의 백신접종을 처음으로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Rickert 등[24]의 연구에서는 일방적인 메시지와 질문이 없는 집단에 비해 양면 메시지와 질문이 있는 집단에서 백신접종에 대한 의도와 첫 백신접종률이 더 좋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진행하였으나, 메시지는 효과가 없었으며, 질문 집단에서의 백신접종 의도는 강화되었으나 백신접종률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설득중재 후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던 부모 중 81.8%가 자녀에게 백신접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보고되었다[25].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예방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궁경부암과 HPV 백신접종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였고, 자녀에게 백신접종을 하겠다는 의도 역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IV. 논의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된 자궁경부암 예방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를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국외에서는 총 7편으로 10년 동안 1년에 1편 정도의 연구가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외 논문의 교육 방법은 대부분 강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20][21][23][26] 또한, 대학생 대상 국내연구에서도 강

의를 통한 교육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15][16].

교육제공방법 분석결과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정보제공, 리플렛과 브로셔와 같은 핸드아웃을 통한 방법, DVD 비디오를 이용한 영상제공과 메시지를 이용한 방법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미혼 대학생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교육에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강의식 교육, 유인물, 브로셔 제공 등과 같은 교육제공 방법이 유사하였다[15]. 그러나 강의식 교육은 시간과 장소가 필요함으로 많은 사람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앱을 이용한 프로그램이나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을 접목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궁경부암 예방교육프로그램 교육내용은 주로 HPV에 대한 이해 및 감염과 관련된 정보, 백신접종의 효과성 및 안정성, 접종시기 및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23][27]. 이러한 결과는 부모대상으로 한 자궁경부암 예방교육 프로그램 뿐 아니라 미혼 여대생,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과 유사함을 보여주었다 [15][28]. 또한 자궁경부암 긍정적 태도 강화를 위한 교육내용으로 여성의 검진행위가 증가함은 물론이고[29],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내용이 강화되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자궁경부암 예방교육프로그램 교육효과로는 자궁경부암과 HPV 백신접종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였고, 자녀에게 백신접종을 하겠다는 의도 역시 증가하였다[25]. 이 결과는 Foley 등[28] 연구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궁경부암 예방교육의 효과로 백신접종에 대한 지식 증가와 백신 접종 수용이 증가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주로 여대생[15-17]이나 여고생[30]을 대상으로 한 자궁경부암 예방교육프로그램이 있고 부모 대상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안전성 관련 자료[6][31]를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HPV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부모가 상당하다. 언론 노출과 동시에 정해진

장소에서 지역사회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교육을 통해 자궁경부암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인식개선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 보고[32]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절대적인 양육지원자로 조부모가 90%선을 육박하고 있으므로 추후 조부모의 돌봄교육에 따른 백신접종 여부를 파악하는 연구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국외와 다른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국외에서 시행된 부모 대상의 자궁경부암 예방교육프로그램 내용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 현실에 맞추어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된 자궁경부암 예방교육프로그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교육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교육은 강의가 가장 많았고, 브로셔나 리플렛, 비디오, 메시지 등을 이용하였다. 교육내용은 자궁경부암 발병률 및 원인, HPV 전과경로 및 위험요인, HPV 백신 접종 시기 및 횟수와 보험적용범위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중재 후에는 중재 전보다 교육내용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부모의 백신접종 의도 뿐만 아니라 접종률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본 연구는 국외논문 7편만을 분석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2) 국내·외 국가예방접종의 도입시기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국내 부모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관련 지식과 접종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3)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도 부모를 대상으

로 체계적인 자궁경부암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 4) HPV 백신접종률 증가를 위한 시기별 알람서비스가 도입되어야 하며, 개인보다는 보건복지부의 개입을 통한 대단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1]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80/en/http://www.hpv.org.nz/hpv-vaccine/about-hpv-vaccine>, Retrieved Aug, 24, 2017.
- [2] <https://www.cancer.go.kr/lay1/S1T250C254/contents.do>
- [3] <https://www.cancer.go.kr/lay1/S1T639C641/contents.do>
- [4] https://www.cancer.go.kr/lay1/bbs/S1T674C676/E/22/view.do?article_seq=17470
- [5] 한준현, “남성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의 치료,”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지, 제3권, 제2호, pp.79-85, 2014.
- [6] <http://www.cdc.go.kr/CDC/notice/CdcKrIntro0506.jsp?menuIds=HOME006-MNU2804-MNU2942-MNU2943&cid=136619>
- [7] <https://www.cdc.gov/hpv/parents/vaccine.html>
- [8] 강문희, “일 지역 어머니의 HPV 관련 지식도,” 중앙간호학회지, 제11권, 제3호, pp.193-199, 2011.
- [9] 김혜원, “딸의 자궁경부암 예방 관련 HPV백신 접종에 대한 어머니 수용도와 영향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37-147, 2011.
- [10] 이은숙, 자궁경부암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 어머니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접종 의도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11] 문희, “만 12세 초등학생 딸의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실태 및 영향요인,” 한국기초간호학회, 제20권, 제2호, pp.114-121, 2018.
- [12] 김선화, 성미혜, “여대생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의도 영향요인,” 여성 건강간호학회지, 제23권, 제2호, pp.126-134, 2017.
- [13] 이은주, 박정숙, “여대생의 자궁경부암 지식,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및 접종 실태,” 중앙간호학회지, 제11권, 제1호, pp.65-73, 2011.
- [14] 신미아, “간호대학생의 자궁경부암 백신접종 유무에 따른 효능감, 건강신념 및 자궁경부암 지식의 영향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4호, pp.359-367, 2016.
- [15] 김혜원, “미혼 여대생에게 적용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연계 자궁경부암 예방효과,” 대한간호학회지, 제39권, 제4호, pp.490-498, 2009.
- [16] 김정효, 박미경,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포함한 자궁경부암 예방 성교육이 여대생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과 자궁경부암 예방행위의도 및 성적 자율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6권, 제2호, pp.257-264, 2010.
- [17] 이은지, 김현옥, “여대생에게 실시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교육의 효과,” 한국간호과학회, 제41권, 제5호, pp.715-723, 2011.
- [18] <http://www.cdc.go.kr/CDC/notice/CdcKrIntro0201.jsp?menuIds=HOME006-MNU2804MNU2937&cid=75836>
- [19] 최정아, 김경아, “보건 계열과 비보건 계열 남자 대학생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향과 접종 저해 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7권, 제2호, pp.144-152, 2016.
- [20] P. L. 1. Reiter, B. Stubbs, C. A. Panozzo, D. Whitesell, and N. T. Brewer, “HPV and HPV vaccine education intervention: effects on parents, healthcare staff, and school staff. *Cancer Epidemiology, Biomarkers & Prevention*, Vol.20, No.1, pp.2354-2361, 2008.
- [21] A. M. 1. Spleen, B. C. Kluhsman, A. D. Clark, M. B. Dignan, and E. J. Lengerich, “An increase in HPV-related knowledge and vaccination intent among parental and non-parental caregivers of adolescent girls, age 9-17 years, in Appalachian Pennsylvania,” *J. of Cancer Education*, Vol.27, No.2, pp.312-319, 2012.
- [22] O. Wegwarth, S. Kurzenhäuser-Carstens, and G. Gigerenzer, “Overcoming the knowledge - behavior gap: The effect of evidence-based HPV vaccination leaflets on understanding, intention, and actual vaccination decision,” *Vaccine*, Vol.32, No.12, pp.1388-1393, 2013.
- [23] A. Aragonés, D. M. Bruno, M. Ehrenberg, J. Tonda-Salcedo, and F. M. Gany, “Parental education and text messaging reminders as effective community based tools to increase HPV vaccination rates among Mexican American children,” *Preventive Medicine Reports*, Vol.2, pp.554-558, 2015.
- [24] V. I. 1. Rickert, B. A. Auslander, D. S. Cox, S. L. Rosenthal, R. E. Rupp, and G. D. Zimet, “School-based HPV immunization of young adolescents: effects of two brief health interventions,” *Human Vaccines & Immuno-therapeutics*, Vol.11, No.2, pp.315-321, 2015.
- [25] A. S. Baldwin, D. C. Denman, M. Sala, E. G. Marks, L. A. Shay, S. Fuller, D. Persaud, S. C. Lee, C. S. Skinner, D. J. Wiebe, and J. A. Tiro, “Translating self-persuasion into an adolescent HPV vaccine promotion intervention for parents attending safety-net clinics,”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Vol.100, No.4, pp.736-74, 2017.
- [26] J. Li, Le-Ni. Kang, B. Li, Y. Pang, R. Huang, and You-Lin. Qiao, “Effect of a group educational intervention on rural Chinese women’s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human papillomavirus(HPV) and HPV vaccines,” *BMC Cancer*, Vol.15, p.691, 2015.
- [27] E. D. Paskett, J. L. Krok-Schoen, M. L. Pennell, C. M. Tatum, P. L. Reiter, J. Peng, B.

M. Bernardo, R. C. Weier, M. S. Richardson, and M. L. Katz, "Results of a Multi-level Intervention Trial to Increase Human Papillomavirus(HPV) Vaccine Uptake among Adolescent Girls," *Cancer Epidemiology Biomarkers Prevention*, Vol.25, No.4, pp.593-602, 2016.

[28] O. W. Foley, N. Birrer, J. A. Rauh-Hain, R. M. Clark, E. DiTavi, and M. G. Del Carmen, "Effect of educational intervention on cervical cancer prevention and screening in Hispanic women," *Journal. of community health*, Vol.40, No.6, pp.1178-1184, 2015.

[29] 최나연, 이병숙, "여성 결혼이민자의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6호, pp.326-336, 2015.

[30] 최준영, 최소영, "여고생에게 적용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관련 교육의 효과," *중앙간호학회지*, 제13권, 제3호, pp.128-135, 2013.

[31] <http://www.cdc.go.kr/CDC/notice/CdcKrIntro0201.jsp?menuIds=HOME006-MNU2804-MNU2937&cid=69245>

[32] 육아정책연구소, *2014년 KICCE 연차보고서*, 2014.

임 세 미(Se-Mi Lim)

정회원



- 201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석사)
- 201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박사수료)
- 2016년 9월 ~ 현재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성인건강, 암, 호스피스

저 자 소 개

염 영 란(Young-Ran Yeom)

정회원



- 2007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석사)
- 2017년 8월 : 단국대학교 간호학과(박사수료)
- 2017년 3월 ~ 현재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지역사회, 중년여성, 교육